

5 | Good Software(GS)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한 SW 품질향상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과 ■ 활성화 방안 모색

각종 산업이 융·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PC,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자동차, 의료, 국방, 항공 등 다양한 제조업에 접목되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업체들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가격중심의 수발주 체제로 인한 수익률 저하, 미약한 기술 개발비 투자, 요소기술의 부재, 저품질 소프트웨어 양산,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외면,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 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제품의 질보다 개발단가와 개발기간을 줄이는데 급급한 실정이며, 여기에 낮은 지명도와 마케팅 능력부재, 막연한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의식까지 겹쳐지면서 국산 소프트웨어가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외산업체가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SW시험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갖추고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었다. 반면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해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선불리 SW시험인증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는 ■ GS 인증제도의 탄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첫 출발은 대부분 자본과 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셀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라져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청춘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일약 주목받는 벤처기업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만들어진 저품질의 소프트웨어들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손해

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자칫 IT산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SW시험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3자 SW시험인증기관으로 SW시험인증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로부터 시험인증업무를 지정받은 SW시험인증팀은 2000년에 2개월 간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GS시험인증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1년 12월 TTA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GS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2003년 1월 소프트웨어 전문야로 GS시험인증 범위를 확대하였다.

GS시험인증제도는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저 품질의 소프트웨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 품질확인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GS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각종 제도적 혜택과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제

품에 대해서만 GS라는 인증 마크를 부여해주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GS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TTA만의 시험인증 시스템 확립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와 시험인증업무를 담당해 온 TTA는 SW시험인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정부, 관계 산학연 및 SW 부문별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기반 기술 및 시험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VeriTest, 독일의 TÜVIT 등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술 교류 및 상호인증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TTA SW시험인증팀의 GS시험인증 절차는 크게 상담 및 계약, 시험, 결과보고 및 인증심의 단계로 구성된다. 시험인증을 신청한 업체와 상담을 거쳐 제품에 대한 특징 및 시험환경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계약을 한 후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과정에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결함에 대한 품질컨설팅을 제공하여 결함을 수정하게 하고, 수정된 제품에 대해 재시험을 수행하여 결함 수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함은 품질특성과 결함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결함통보는 시험제품

의 특징에 따라 평균적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이루어진다.

시험 종료 후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인 인증서와 함께 GS인증 마크가 부여되고 각종 제도적 혜택과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GS인증제품 홍보 웹사이트(www.good-sw.or.kr), 소프트웨어포 품질인증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품 홍보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품질개선은 물론 홍보효과와 더불어 제도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 GS시험인증을 신청할 경우 GS시험인증비용의 30%를 감면해주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우선등록, 우선구매 제도 등 GS제품이 공공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S시험인증 범위는 임베디드(Embedded), 모바일, 컴포넌트(Component),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유틸리티, 게임, 통신용, 교육용, 기업용, 주문형(SI), 보안, 미들웨어, 사무용, e-Biz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를 포함한다.

해외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한 GS 시험인증 활동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TTA의 GS시험인증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GS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국산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의 판매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제품은 결국 한계를 드러냈고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다급해진 업체들은 인증기관을 찾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TTA GS시험인증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례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GS인증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GS인증제도는 어느새 소프트웨어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경험과 연륜에도 불구하고 TTA의 GS시험인증서비스가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업체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GS인증에 대한 신뢰는 국내의 것만이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GS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의 업체들도 TTA의 실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GS시험인증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으로 만들겠다는 시험인증연구소 담당자들의 열의와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GS인증의 비전과 소프트웨어포 특별관 운영

GS인증제도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SW인증제도로 도약하는 것이다. TTA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내외 SW관계자들에게 GS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그 일환으로 TTA는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소프트웨어포에 GS인증 특별관 전시를 추진해오고 있다. 소프트웨어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전시회이다. TTA는 GS인증 특별관 전시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네팔 등 외국 업체들로부터 폭넓은 호응과 성과를 거뒀다.

비록 아직까지 홍보와 인증제품의 성능 입증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지만, 머지않아 세계적인 시험인증 마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